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의 성장과 위협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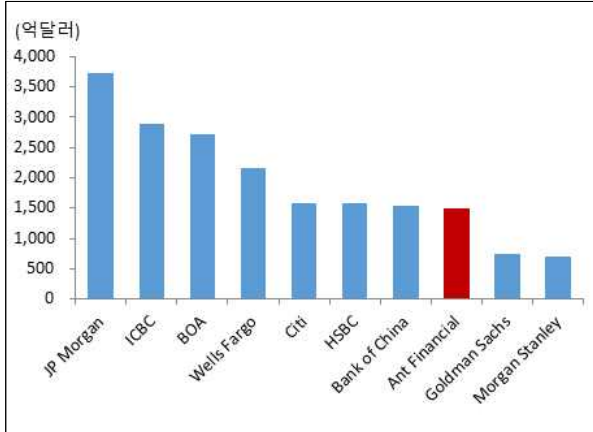
베이징지점 중국리서치팀,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주예성 (zhuyixing118@kdb.co.kr), 이은영 (liey@kdb.co.kr)

- ◆ 세계 최대 인터넷금융 기업인 앤트파이낸셜은 온라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Alipay)'를 주축으로 모회사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부문과 동반 급성장
 -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가치 추정치는 1,477억달러로 Citi, HSBC 등의 시가총액에 근접한 수준
- ◆ 동사는 모바일 간편결제 분야를 공략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각종 핀테크 기술을 축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금융 전 분야로 사업 확장
 - 결제서비스 부문은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제도권 금융 소외층이었던 소비자, 영세기업 대상의 소액대출 부문은 수익성이 높아 앤트파이낸셜의 캐시카우 역할 수행
- ◆ 최근 모바일결제 경쟁 심화, 소액대출 감독 강화 등이 성장을 제약하는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자, 금융기관에 디지털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서비스 전문 업체로 변모 중

□ 앤트파이낸셜은 온라인 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Alipay)'를 주축으로 세계 최대 종합 인터넷금융 기업으로 성장

- 마윈 알리바바 前 회장은 '11년 알리페이 부문을 '저장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유한회사'로 이관하고 '14년 同社를 금융 지주사격인 앤트파이낸셜로 전환
 - '11년 지급결제 라이선스 취득 후 자회사 신설, 인수합병 등을 통해 자산운용, 소액신용대출, 은행, 보험 등의 라이선스를 추가하며 금융 지주사 체제 구축
 - 앤트파이낸셜 최대 주주는 경영진 사주조합이며, 마윈 전 회장이 다수 의결권 행사*
 - * 알리바바그룹 兩大 주주는 지분 43%의 Yahoo(美)와 33%의 소프트뱅크(日)로, 마윈 전 회장 등 경영진 지분은 24%에 불과하지만, 앤트파이낸셜은 경영진 사주조합 지분이 49%이고 다음으로 알리바바그룹 33%, 국영 투자기관 8%, 해외 투자기관 6% 順
 - 마윈 전 회장의 앤트파이낸셜 지분은 0.2%에 불과하나 '중신 파트너에 이사회의 과반수 임명권을 부여'하는 특유의 '파트너십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
- 앤트파이낸셜은 단기간에 세계 非상장 벤처기업* 중 기업가치가 1,000억달러를 상회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성장
 - * '19.9월 알리바바의 앤트파이낸셜 지분 인수(33%)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장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
 -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가치는 '18년말 기준 1,477억달러*로, 2위 테우타오(750억 달러, AI 기반 뉴스 추천앱)를 크게 상회
 - * 美 시장조사 기관 Pitchbook과 CB Insights의 추정치
 - 이는 Citi, HSBC와 같은 대형 글로벌 은행의 시가총액에 근접한 규모

앤트파이낸셜과 주요 금융기관 시가총액 비교



주 : 각 금융기관의 시가총액은 '19.10.14일 기준
자료 : Wind

앤트파이낸셜의 사업 범위와 주요 자회사

구분	자회사	지분(%)	시점
결제	Alipay	100	'11.5
	Tianhong Asset MGT	51	'13.6
자산운용	Shumi Fund	61	'15.4
	Ant Fortune	100	'15.8
소액	앤트샤오웨이 소액대출회사	100	'13.8
신용대출	앤트상청 소액대출회사	100	'15.2
은행	MYbank	30	'14.9
보험	중안보험	13	'13.3
	Cathay Century Ins.	51	'15.9
	Trust Mutual Life	34	'17.5
신용조회	Zhima Credit	100	'15.1
핀테크	앤트 금융클라우드	-	'15.9

주 : 시점은 해당 사업 인허가 취득 시기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 알리페이(온라인결제)는 모회사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급성장시키는 핵심 동력이자 핀테크 기술력을 축적하는 근간으로 작용

- 알리페이는 신용거래를 꺼리는 중국 소비자의 특성에 착안하여 제3자 결제서비스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국 전자상거래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
 - 美 Paypal을 벤치마킹하여, 고객이 알리페이 에스크로계좌(Escrow Account)에 예치한 구매대금을 고객의 물건 배송 확인 후 판매자에 입금해주는 방식 채택
 -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는 '08년부터 10년간 10배 증가
 - 알리바바의 '18년 총거래액은 아마존의 3배에 달하는 8,668억달러 기록
- 이후 모바일 간편결제 분야를 공략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보처리 속도, 보안 등의 개선을 위한 기술력 축적
 - '10년 QR코드 스캔 방식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출시 전후로 사업 중점을 '안전' 결제에서 '간편' 결제로 전환
 - 중국의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자 9.9억명 중 알리페이 사용자 수는 '19.6월 기준 약 9억명에 달함
 - '17년 안면인식 결제서비스를 출시하고, '18년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홍콩 알리페이(AlipayHK)와 필리핀 전자지갑 업체 GCash간 실시간 국제송금 실현
 - * 앤트파이낸셜의 블록체인 기술특허 건수는 세계 1위. '19.4월 290건으로 2위 IBM(190건)을 크게 상회
 - 또한 클라우드와 에지(Edge) 컴퓨팅을 결합한 분산식 정보처리 센터*를 설립, AI,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금융보안 시스템** 등도 구축
 - *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앙 집중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면 에지 컴퓨팅은 분산된 소형 서버를 통해 데이터 처리. 이를 결합한 분산식 정보처리 센터는 초당 최대 49.1만건 결제 처리 가능
 - ** 초당 50만건의 리스크 식별 작업을 통해 사용자 위치, 환경 변화에 적합한 인증 방식 등을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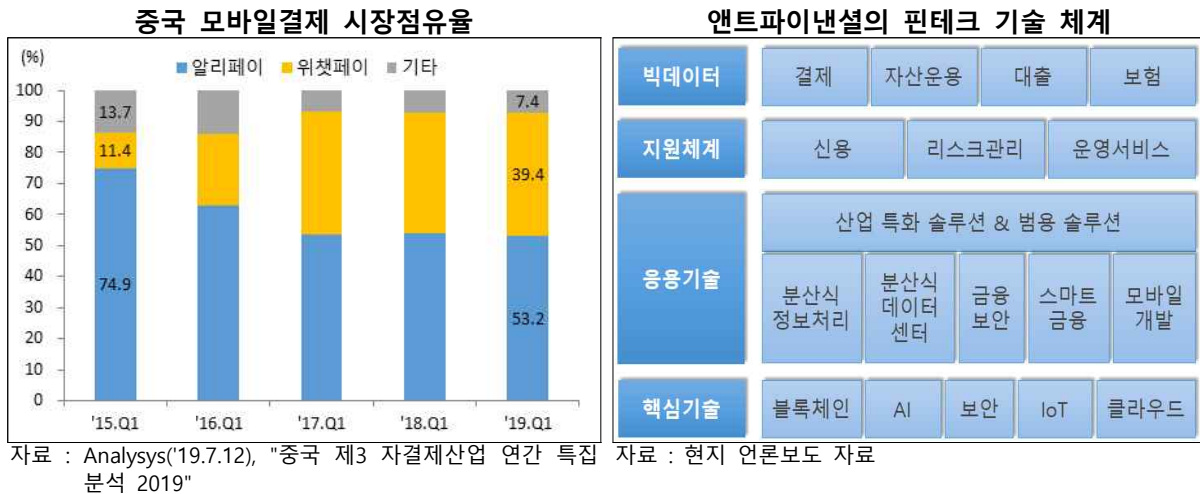
□ 한편 국유은행 중심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소비자,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사업 부문은 엔트파이낸셜의 캐시카우 역할 수행

- 엔트파이낸셜은 산하에 인터넷은행인 MYbank와 2개 소액대출회사*를 운영, 전자는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후자는 일반 소비자층이 주요 고객
 - MYbank는 '14.9월 설립된 중국 최초의 민영 인터넷은행으로, 매출 100만위안 이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무담보 소액대출 제공
 - '19.6월 누적 기준 400여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총 1,746만개 영세기업*에 약 3조위안 규모(510조원)의 자금을 공급
 - * 중국의 영세기업(자영업자 포함) 수가 약 9,000만개인 점을 고려하면 5개 영세기업 중 1개가 MYbank로부터 대출을 받은 셈으로, 이 중 80%는 타 금융기관 대출 이력이 없는 기업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3,000개의 리스크관리 솔루션과 10만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입체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 구축
 - 2개 소액대출회사의 정식 명칭은 충칭시 엔트샤오웨이와 충칭시 엔트샹청이나, 대표 상품인 '화베이(가상 신용카드)'와 '지에베이(소비자 신용대출)'로 통칭
 - 이들 상품은 알리페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화베이'의 경우 특히 젊은 층에 큰 인기로 중국의 1.9억명에 달하는 90년대생 중 4,500만명*이 이를 사용 중
 - * 화베이, DT차이징 발표자료('17.5.3), "2017년 청년층 소비생활 보고서"
 - 운용자금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으로 조달, 兩社가 '17년 한해 발행한 ABS 총액만 3,090억위안으로 등록 자본금 160억위안의 19.3배에 달함
- 결제서비스와 기술서비스의 매출 비중은 소액대출 등 금융업보다 큰 편이나 마케팅 비용과 R&D 지출로 인해 수익성은 금융업 부문이 높음
 - 엔트파이낸셜의 전체 매출* 중 결제서비스와 기술서비스 비중은 '17년 기준 55%, 34%이고, 소액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업은 11%에 불과
 - * 자오상증권('18.7)의 추정에 따르면 '17년 엔트파이낸셜의 매출 규모는 약 419억위안(7.1조원)
 - 반면 동기간 소액대출사업의 엔트파이낸셜 총 세전이익 비중은 85%에 달함
 - 소비자 신용대출인 '지에베이'의 年금리는 14.6% 수준

□ 그러나 최근 모바일결제 경쟁 심화, 소액대출 관련 인터넷금융 감독 강화 등은 엔트파이낸셜의 성장을 제약하는 위협요인으로 부상

- 엔트파이낸셜의 세전이익*은 '17년 131.9억위안에서 '18년 △19.0억위안으로 악화
 - * 알리바바에 세전이익의 37.5%를 '로열티, 각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 이를 역산한 추정치
- 알리페이의 모바일결제 시장점유율은 '15.1분기 74.9%에서 '19.1분기 53.2%로 하락하였고, 동기간 위챗페이는 11.4%에서 39.4%로 확대

- 캐시카우인 소액대출사업은 '17년 말 금융감독 강화로 ABS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리면서 위축
 - '17.12월 '소액대출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대출자산 양도, ABS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부채(융자)로 간주, 융자/자기자본 비율 산정에 포함
 - 엔트파이낸셜 산하 소액대출회사가 소재한 충청시는 소액대출회사의 융자 총액을 자기자본의 2.3배 이내로 제한
 - 이에 '화베이', '지에베이'의 '18년 ABS 발행규모와 세전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56%, 40% 수준으로 급감
 - ABS 발행액은 '17년 3,090억위안에서 '18년 1,724억위안으로 감소
 - 세전이익은 동기간 112억위안에서 45억위안으로 감소
-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중국내 소비 위축과 고객들의 대출상환 연장 요구 등도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



□ 엔트파이낸셜은 이러한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핀테크 기술의 상용화에 주력 하는 한편, 향후 금융업을 신설 자회사에 이관하고 기술 전문 업체로 전환할 방침

- '16년 론칭한 '엔트 금융클라우드'를 통해 '20년까지 1,000개 금융기관의 업무혁신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계 5만개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 금융기관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 솔루션과 인터넷금융 노하우, 빅데이터 등 공유*
 - * 난징은행이 엔트파이낸셜, 알리클라우드(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 자회사)의 기술지원 하에 론칭한 인터넷 대출 플랫폼 '신윈+(鑫云+)'에는 MYbank의 분산식 정보처리 기술 적용
- 현재 기술 부문과 금융 부문 분리작업을 진행 중이며 '21년까지 엔트파이낸셜의 기술 지원서비스 매출 비중을 65%로 확대한다는 계획